



KBS2 누난 내게 여자야

KBS 2TV <누난 내게 여자야>가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했다. 매주 월요일 밤 9시 50분. 바쁜 생활 속 무뎌진 '연애 감각'이 매력적인 연상연하 남녀의 리얼 로맨스로 되살아나고 있다.

10월 27일(월) 첫 방송에선 매력 넘치는 4명의 누나가 '키워드'만으로 첫 만남 상대를 선택했고, 이어 선착순으로 데이트 상대를 지목하는 미션에서 연하남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보는 이들을 두근거리게 했다. 진행자로 나선 한해진, 황우슬혜, 장우영(2PM), 수빈(TXT)은 "같이 설레게 되고 빠져든다.", "흑흑 치고 들어오는 게 연하의 매력"이라며 출연자들의 데이트에 몰입했다.

박진우 PD는 "출연자를 섭외할 때 다시 제대로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진정성이 가장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방송에선 사랑보다 일이 우선이었는데 내 감정에 오롯이 집중하는 게 기대된다거나 연상을 만났을 때 좀 더 어른스럽고 연애가 차분했던 것 같다는 출연자들의 솔직한 말이 눈길을 끌었다.

서로의 나이를 추측만 하는 상황. '나이'는 러브라인에 어떤 변수가 될까. 심쿵 유발, 과몰입 주의! 월요일 밤은 연상연하 리얼 로맨스 <누난 내게 여자야>로 채널 고정!

가을 예능 맛집 KBS로 오세요!

예능계 '먹방 대모' 이영자와 김숙이 스타들의 '찐맛집' 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라이더로 변신한다. 10월 15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 50분 시청자를 찾아가는 KBS 2TV 새 예능 <배달왔수다>는 스타들이 주문한 실제 맛집 메뉴를 이영자, 김숙 두 MC가 직접 '배달'하고 근사한 상차림까지 해 먹으며 '수다' 떠는 신개념 배송 토크 예능이다.

먹방은 1등이지만, 배달은 초보인 이영자와 김숙이 직접 라이딩하며 맛닥뜨리는 예측 불가 상황과 생생한 현장감, 그리고 '먹교수'다운 거침없는 먹방이 색다른 재미를 준다. 여기에 "맛있으면 0칼로리, 재밌으면 0원!"이라는 독창적인 토크 장치까지 더해져, 매회 스타들의 필터 없는 수다와 현실 리액션이 어우러진 순도 100% 토크로 웃음을 선사한다.

스타들이 실제로 시켜 먹는 '찐맛집 배달 리스트', 배달 중 터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 영자·숙 자매의 특급 입담까지! 시원한 웃음이 필요한 수요일 밤에는 KBS 2TV <배달왔수다>를 절대 놓치지 말자!



KBS, 3년 만에 '균형예산' 편성

'통합징수+자구노력'으로 내년 흑자전환 목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광고시장 위축 등으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 온 KBS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균형 수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 목표를 달성하면 2026년에는 5년 만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KBS는 균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대하드라마 등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늘리고, 시청자 서비스 등 공적 책무 수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KBS는 10월 29일(수) 정기이사회에서 2026년도 예산을 균형 수지로 편성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KBS가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건 3년 만에 처음으로, 2024년에는 -1,431억 원, 2025년엔 -764억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KBS는 5년 만에 흑자전환에 나서게 된다. KBS는 당기손익상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해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KBS가 내년에 균형 수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건 박장범 사장 이하 전 직원이 뚝뚝 뭉쳐 TV 수신료 통합징수법안 통과에 힘을 모은 덕분이다. 4월 17일 개정 방송법이 통과되면서 11월부터 수신료 통합징수가 재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균형 수지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면에 계속 ▶]

“가요무대 40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가 매주 월요일 밤 10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가요 예능 프로그램 KBS 1TV <가요무대>가 40주년이라는 불멸의 전설을 쌓아 올렸다. 1985년 11월 4일(월) ‘고향에 보내는 노래’를 주제로 첫선을 보인 이래 40년 동안 1,920회에 이르는 방송을 통해 명실공히 국내 최정상의 전통가요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가요무대>의 산 증인 김동건 아나운서

<가요무대>의 역사를 만든 산 증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김동건 아나운서다. 1963년 방송계에 입문한 김동건 아나운서는 1985년 11월 18일(월) 3회 방송부터 KBS <가요무대> 진행을 맡아 2003년 6월 16일(월)까지 17년 넘게 프로그램을 이끈 뒤 전인석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리고 7년 만인 2010년 5월 24일(월) <가요무대>로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 15년 동안 변함없

이 대한민국의 월요일 밤 10시를 책임지고 있다. 도합 33년. 한국 방송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전무후무한 업적이다.

40주년 특집 수놓은 명곡의 향연

<가요무대>가 11월 3일(월) 40주년 특집 방송에서 120분 특별 편성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감사하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가요무대>가 40년 동안 노래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가요무대> 40년을 찬란하게 빛낸 주옥같은 명곡들이 무대를 수놓았다. 김연자, 설운도, 최진희, 정재은, 주현미, 김수희, 윤항기, 노사연, 오승근, 김국환, 조항조, 주병선, 서유석, 박해신, 박구윤, 강문경, 안성훈, 양지은, 김용빈, 류원정, 배아현, 그리고 2008년생 정서주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가수들이 총출동해 무대를 빛냈다. 40년 전 리비아로 파견 근로를 떠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던 초등학교생이 어느덧 중년이 돼 어머니

와 함께 방청석을 찾았고, 40년 전 리비아 대수로 현장에서 진행된 <가요무대>에 함께했던 파견 근로자들도 초대돼 4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피날레 장식한 ‘가요계 전설’ 이미지

마지막 무대는 한국 가요계의 살아 있는 전설 이미지가 장식했다. 이미지는 “<가요무대>는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후배들이 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다. 너무 감사하다. 후배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꼭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자신의 대표곡 ‘동백아가씨’와 앵콜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은’을 열창하며 여든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줬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김동건 아나운서 진짜 경이롭다.”, “관객분들 사연 듣고 울컥했네요. 노래까지 더해지니 눈물 나요”, “‘내 삶의 이유 있음은’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등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방송은 전국 7.0%, 수도권 6.2%로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과 더불어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 1면에서 계속

대하드라마, 대형 공연 등에 과감히 투자

비용 절감과 동시에 시청자 서비스 대폭 강화

KBS는 최근 2년 동안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 어왔다. 대규모 명예퇴직과 무급휴직, 연차휴가 전일 축진 등을 통해 2023년 대비 인건비를 15% 절감하고, 제작비를 비롯한 전 부문에서 비용 효율화를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예산 타당성 전면 재검토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사업경비 116억 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송·중계소 부지 등 유희부동산을 적극 매각해 콘텐츠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전인 2023년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수입 감소 등으로 55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1,000억 원 규모의 적자 요인이 더해져 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았지만, 강도 높은 긴축 노력으로 적자 폭을 최소화해 약 900억 원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KBS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신료 통합징수의 재정적 효과를 시청자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공영 방송 KBS만이 구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하드라마와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와 같은 대형 공연에 과감히 투자하고, AI와 XR을 활용한 역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국가적 의제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과 더불어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제작과 문화 행사 개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장범 KBS 사장은 2026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상파의 구조적 위기와 광고 시장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내년도도 철저한 비용 절감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대하드라마 등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올해 말까지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KBS, 2026 동계 패럴림픽 중계권 확보

KBS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KBS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포함한 모든 채널에서 이번 대회를 방송, 배포할 권리를 갖고 KBS1, KBS2, KBSN, KBS+, 공식 디지털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주요 경기 생중계 및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은 내년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며, 최대 655명의 선수가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등 6개 종목에서 79개 메달을 두고 경쟁한다. 이유진 KBS 스포츠센터장은 “패럴림픽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KBS는 대한민국 패럴림픽 공식 방송사로 함께 해왔다.”며 “대회의 감동과 열정을 시청자들에게 헌신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시간 비행기 타고 KBS 보러 왔어요!”

“올해 62살이에요. KBS 드라마로 한국어를 5년째 배우고 있어요.”

10월 23일(목) 코리아 팬 파나마(Korea Fans Panama, KFP)의 열혈 회원 올메도 고메스의 경쾌한 웃음이 KBS 견학홀에 울려 퍼졌다. 그는 “〈드라마 한국어 플러스〉로 공부하고 있다. KBS 드라마로 한국 문화를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드라마 한국어 플러스〉는 KBS 월드라디오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해 방송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KFP는 2010년 한류에 매료된 파나마 현지 팬 50여 명이 모여 시작했다. 지금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원 약 3,500명 규모의 대형 팬 클럽으로 성장했다.

지구 반바퀴 돌아온 팬들의 KBS 사랑

KFP 회원들은 2018년 KBS 라디오국 R국제방송부와 인연을 계기로 해마다 한국을 찾는다. 파나마에서 출발해 이스탄불을 거쳐 30시간 넘는 긴 여정 끝에, 올해도 25명이 KBS를 방문했다. 아나벨 데 라로사 회장은 “우리

는 한국 콘텐츠, KBS 프로그램의 열렬한 팬이다. 모두 이곳에 오는 일정을 몹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OP 댄스 강사인 모니카 누네스는 “평소 좋아하는 아이돌이 오른 무대나 스튜디오를 직접 볼 수 있어 놀라웠다. KBS 프로그램과 역사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사이자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 중인 알렉산드라 토바레스는 “파나마의 20~30대 중 〈꽃보다 남자〉를 보고 한류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드라마 OST로 K-POP을 접했고,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예능도 즐겨본다.”며 KBS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R국제방송부 장지선 PD는 “스튜디오와 견학홀 구석구석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중하게 담아가는 참가자들의 설레는 눈빛이 KBS 구성원으로서 큰 기쁨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기부여가 됐다. KBS 제작 현장의 열정과 콘텐츠의 깊이가 파나마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KBS를 아끼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생생히 전해지길 바란다.”며 KFP 회원들과 함께한 소감을 전했다.



〈슈돌〉12주년, 유아차 런 질주!

2013년 11월 문을 연 뒤 시청자들의 애정을 듬뿍 받아온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풍성한 12주년 특집을 예고했다.

‘슈돌 가족’인 김준호(은우·정우), 우혜림(시우·시안), 김윤지(엘라)는 11월 1일(토)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유아차 런’에 출동해,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7km 코스를 2만 3천여 명과 함께 달렸다.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달리며 행복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슈퍼맨’들을 본 시민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생생한 유아차 달리기 축제의 현장은 11월 26일(수)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김영민 PD는 “1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찾아가는 슈돌 특집’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에 참가한 ‘서울 유아차 런’ 뿐 아니라 슈돌 최초의 팬 미팅과 슈돌 팝업 스토어, 굿즈 발매 등 다양한 특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슈돌 베이비들에게 애정을 쏟아주시는 랜선 이모, 삼촌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예쁘게 봐주시고 함께 즐겨달라.”고 말했다.

▶ 〈슈퍼맨이 돌아왔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

〈FM대행진〉 50번째 생일

‘당신의 모닝 파트너’ KBS 쿨FM 〈조정식의 FM대행진〉이 50주년을 맞았다. 〈FM대행진〉은 1975년 11월 10일 동양방송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아침을 여는 정보채널’로 사랑받고 있다.

애칭 ‘식디’로 불리는 DJ 조정식 아나운서는 “50주년을 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역대 DJ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무려 19년을 지킨 황정민 아나운서는 “아직도 아침마다 〈FM대행진〉을 진행하던 때가 그립다.”고 말했고, ‘박 과장’으로 사랑받았던 박은영 아나운서는 “저도 애청자로서 즐겨듣는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보내달라.”며 변함없는 애정을 전했다.

11월 10일(월) 50번째 생일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이벤트에선 축하 음성 메시지를 보낸 청취자 중 50명을 선정해 조정식 아나운서가 디자인에 직접 참여, 특별 제작한 피규어 감사패를 선물했다. 유기성 PD는 “50년 동안 〈FM대행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청취자들을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 한결같이 청취자의 자리를 지켜준 분들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11월 1일(토)부터 열흘간 진행된 본격 감사 주간에는 매일 다양한 ‘50’ 이벤트가 진행됐다. 방송 중인 7시 50분, 8시 50분 정각에 축하 문자를 보낸 분, 50번째 출석한 청취자, 탄생 50일을 맞은 아기, 둘의 나이를 합쳐 50살인 경우 등 ‘50’ 키워드를 활용해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청취자들은 “10년째 듣고 있다. 100주년 되기를 기원한다.”, “직장 26년 차인데 입사 때부터 함께 하고 있다.”,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 감사하다.” 등의 다양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FM대행진〉 매일 오전 7시 **KBS CoolFM** (FM 89.1MHz)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 3부작

인간 너머의 인간, '초인류'가 온다

38년 전, 1987년 개봉한 영화 <로보캅>은 총탄에 쓰러진 인간이 강철의 육체로 되살아나 범죄자를 단죄하는 모습을 그렸다. '강하고 정의로운 인조 인간'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10년 후, 1997년 영화 <가타카>는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자가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를 그렸다. 그리고 2025년. 기계 몸과 유전자 설계, 수십 년 전 사람들의 감탄과 놀람을 자아냈던 영화 속 상상은 이제 현실이 됐다.

인간의 혁신적인 진화는 이미 시작됐다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은 경이로운 의과학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생체공학, 뇌공학, 유전자공학 분야의 혁신적인 인간 진화를 보여준다. <트랜스휴먼>은 1부 <사이보그>, 2부 <뇌 임플란트>, 3부 <유전자 혁명> 순으로 11월 12일부터 3주 연속 매주 수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서막을 여는 1부 <사이보그>편은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의 현장을 조명한다. 전쟁 중 팔,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생체공학 의수와 의족을 통해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 세계 최초로 '사이보그 인간'이라 불리는 닐 하비슨의 이야기를 통해 정교한 생체공학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2부 <뇌 임플란트>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BCI(Brain-Computer Interface) 기술이 열어가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작진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BCI 회사 뉴럴링크의 첫 임상시험 환자 놀란드 아르보를 만났다. 블루투스 기반으로 유선 장치 없이 뇌와 컴퓨터가 결합한 놀란드의 '뇌 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자유와 감각을 돌려준 첨단 기술의 상징이다. 3부 <유전자 혁명>은 인간 스스로 생명을 재설계하려는 거대한 도전을 기록한다. 질병의 치료를 넘어 노화 속도를 제어하고 생명의 시간을 연장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의 현황과 그 철학적 의미를



세계적 연구자들과 함께 탐구한다.

기계와 인간이 '연결'이 아닌 '융합'하는 시대,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은 기술이 인간의 진화를 선도하는 유례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몸의 주인인가?", "인간다움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을 던진다.

▶ <트랜스휴먼> 3부작 11월 12일(수) ~ 매주 수요일 밤 10시 KBS 1TV

KBS 1TV 새 시사예능 <리얼카메라, 진실의 눈>

영상 속 숨은 진실을 보여드립니다!

CCTV, 블랙박스, 바디캠, 스마트폰으로 찍은 수많은 영상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 릴스, 틱톡 등에 끊임없이 공유되는 시대.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찍으며 인기를 누리지만, 정작 그 뒤에 숨은 맥락과 사연은 놓치기 쉽다. 수백만 조회수로 화제가 된 '길고양이 탈출기' 영상엔 구조자의 숨은 노력이,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 걸고 배달에 나선 라이터엔 그릴만한 사정이 있었다. KBS 1TV가 새롭게 선보이는 <리얼카메라, 진실의 눈>은 요즘 대세인 짧은 영상 콘텐츠 '숏폼(Short-form)'이 담지 못한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는 '관찰+탐사+예능' 프로그램이다.

단순 리액션 중심의 관찰 형식을 넘어 현장 취재와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사연과 진상, 속사정은 물론 뒷이야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우리가 미처 보

지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안전과 공감의 가치를 시청자에게 전한다. '최고의 이야기꾼' 방송인 김태균, '공감의 아이콘' 이지연 아나운서, '리액션 요정' 걸그룹 오마이걸의 승희, 국내 최고의 법 영상 분석가 황민구까지 각기 다른 재능과 개성을 지닌 네 사람이 보여주는



는 색다른 '케미'가 매회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연출을 맡은 김종석 PD는 "비디오캠이나 CCTV 프로그램이 많은데 주로 어두운 것만 다루더라.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없다."면서, "저희 프로그램은 따뜻한 휴머니즘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밝은 면을 보려 한다."고 말했다. <리얼카메라, 진실의 눈>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0분, KBS 1TV로 시청자와 만난다. 유튜브 'KBS 다큐' 채널에서 '진실의 눈'을 검색하면 미공개 영상도 볼 수 있다. 시청자 제보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진실의 눈'으로!

제32회
KBS한전음악콩쿠르
이하늘 대상

10월 23일(목)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린 제32회 KBS한전음악콩쿠르에서 클라리네티스트 이하늘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하늘은 "꾸밈없는 음악적 표현으로 훌륭한 음색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피아노 부문 정예찬, 현악 부문 첼리스트 채지웅, 성악 부문 바리톤 박상민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는 1천만 원, 금상은 각 부문별로 5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KBS교향악단과 함께한 이번 콩쿠르의 대상, 금상 수상자 무대는 11월 18일(화) 오후 2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KBS한전음악콩쿠르는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의 만 35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